

배포일시	2014. 4. 23.(수) 10:00 (총7매)	보도시점	즉시
담당부서	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	담당자	과장 정현숙 사무관 김정선
		전화번호	02-2181-0472 02-2181-0480

3개월(2014년 5월~7월) · 1개월(5월 상순~하순) 전망
**맑은 날이 많겠으며, 전반에 일시적으로 기온이 크게 올라
 더운 날씨를 보일 때가 있겠음**

【 3개월(5월~7월) 전망 요약 】

월	평균 기온	강수량
5월	평년(16~19℃)보다 높겠음	평년(70~190mm)과 비슷하겠음
6월	평년(19~23℃)보다 높겠음	평년(106~268mm)보다 적겠음
7월	평년(23~26℃)과 비슷하겠음	평년(187~397mm)과 비슷하겠음

【 1개월(5월 상순~하순) 전망 요약 】

순	평균 기온	강수량
5월 상순	평년(15~18℃)보다 높겠음	평년(23~73mm)과 비슷하겠음
5월 중순	평년(15~19℃)보다 높겠음	평년(24~66mm)보다 적겠음
5월 하순	평년(17~20℃)과 비슷하겠음	평년(20~51mm)과 비슷하겠음

1. 3개월 · 1개월 날씨 전망

○ (5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주기적인 날씨의 변화를 보이겠으며, 남서기류가 유입되면서 일시적으로 고온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상순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기류가 유입되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크게 오를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중순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음.

하순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겠으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음.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6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았으며,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올 때가 있었음. 기온은 평년보다 높았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음.
- (7월)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린 날씨를 보일 때가 많았음.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엘니뇨/라니냐 전망)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는 봄철에 정상상태를 유지하다가 하반기에 엘니뇨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됨.
 - ※ 최근 해수면 온도 편차 : 3월 0.0℃, 4월 13~19일 +0.4℃
 - ※ 엘니뇨(라니냐) 정의: 엘니뇨 감시구역(열대 태평양 Nino 3.4 지역: 5°S~5°N, 170°W~120°W)에서 5개월 이동평균한 해수면온도 편차가 0.4℃이상(-0.4℃이하)으로 나타나는 달이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 첫 달을 엘니뇨(라니냐)의 시작으로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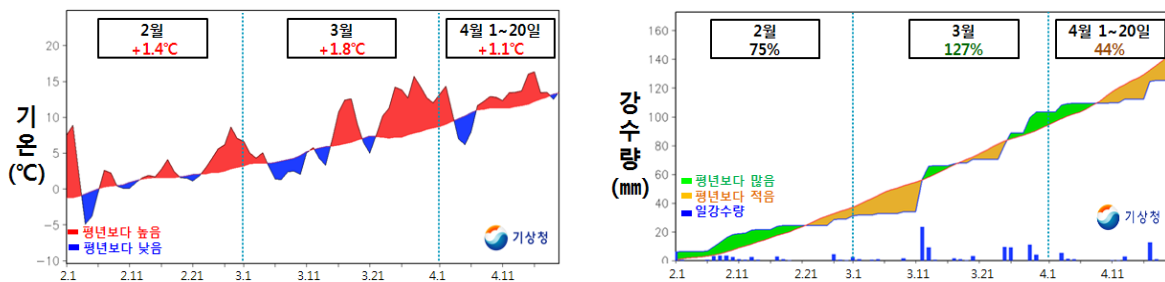
2. 최근 날씨 동향

- (2월) 상순 전반에는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어 고온현상이 나타나다가 대륙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기온 변화가 매우 컸음. 상순 후반부터 북고남저형의 기압배치가 지속되면서 동해안지방에 지속적으로 많은 눈이 내렸음. 하순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았으며, 아침에는 해안과 내륙지역에서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았고, 낮에는 일사로 인해 기온이 크게 올랐음. 1~2일에는 서해상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렸음. 6일에는 남해안 일부 지역에 비가 내렸고, 8일에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렸음. 한편 동풍의 영향을 받은 동해안지방에는 7~14일, 17~18일에 걸쳐 기록적으로 많은 눈이 내렸으며,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제주도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17일에 비가 내렸음. 26~27일에는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았으며, 제주도와 남해안지방에 비가 내렸음. 기온은 2.5℃로 평년(1.1℃)보다 높았으며(평년대비 +1.4℃), 강수량은 28.7mm로 평년(35.5mm)과 비슷하였음(평년대비 75%).
- (3월) 상순과 중순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았으며, 5~6일에 일시적으로 대륙고기압의 영향과 상층 한기가 유입되어 쌀쌀한 날씨가 나타났음. 중순 후반에 우리나라 남쪽을 지나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으며, 하순에는 이동성 고기압이 주로 우리나라 남쪽을 지나면서 따뜻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낮의 강한 일사와 더해져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음. 1일과 4일에는 제주도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제주도와 남해안지방에 비가 내렸으며, 2일과 5일에는 동풍의 영향을 받아 동해안지방에 비 또는 눈이

내렸음. 9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해안과 중부내륙 일부 지역에 약하게 비 또는 눈이 내렸으며, 12~13일에는 제주도 부근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 대부분지방에 비 또는 눈이 내렸음. 17일에는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지역에 따라 약하게 비가 내렸으며, 20일에는 제주도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 대부분지방에 비 또는 눈이 내렸음. 25~26일에는 남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남부지방에, 29~30일에는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비가 내렸음. 기온은 7.7℃로 평년(5.9℃)보다 높았으며(평년대비 +1.8℃), 강수량은 74.1mm로 평년(56.4mm)보다 많았음(평년대비 127%).

○ (4월 1~20일) 상순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았으나, 4~6일에 상층 한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었고, 서고동저형태의 기압배치가 형성되면서 북서계열 바람이 불어와 쌀쌀한 날씨가 나타났음. 중순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번갈아 받았으며, 강한 일사와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음. 3~5일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방에 비가 내렸으며, 12~13일에는 제주도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렸음. 17~18일에는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 대부분지방에 비가 내렸으며, 19~20일에는 제주도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비가 내렸음. 기온은 12.3℃로 평년(11.2℃)보다 높았으며(평년대비 +1.1℃), 강수량은 22.0mm로 평년(50.4mm)보다 적었음(평년대비 44%).

○ (최근 3개월, 2014.2.1~2014.4.20) 평균기온은 7.0℃로 평년(5.5℃)보다 높았으며(평년대비 +1.5℃), 강수량은 125.0mm로 평년(144.6mm)과 비슷하였음(평년대비 83%).



최근 3개월 평균기온(좌)과 강수량(우)의 일변화 (2014.2.1 ~ 2014.4.20)

- ※ 첨부 1 : 최근 10년간의 기후 특성 (5월~7월)
- ※ 첨부 2 : 최근 10년간의 특이 기상 (5월~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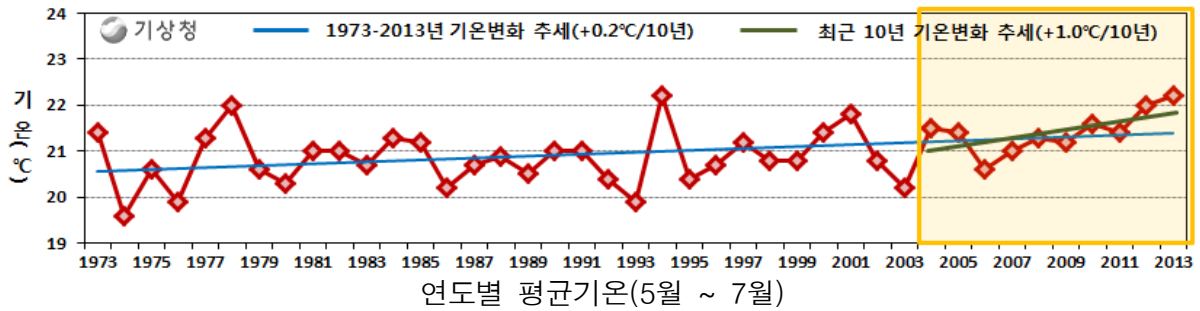
【 알림 】

- 1·3개월 전망 전문은 “기상청 홈페이지→날씨→특보·예보→장기예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1개월 전망은 2014년 5월 2일 오전 10시에 발표될 예정이며, 다음 3개월 전망은 2014년 5월 23일 오전 10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첨부 1] 최근 10년간의 기후 특성 (5월 ~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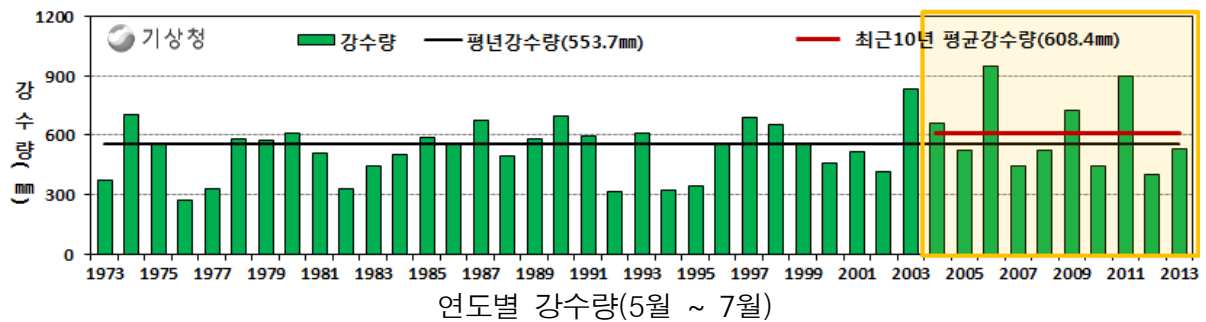
○ 기온

- 최근 10년(2004~2013) 평균기온은 21.4℃로 평년(21.0℃)보다 0.4℃ 높았음.
- ※ 최근 10년 평균기온 변화 추이(℃/10년) : +1.0(5월 +0.7, 6월 +0.7, 7월 +1.6)



○ 강수량

- 최근 10년 평균강수량은 608.4mm로 평년(553.7mm)대비 110%를 기록하였음.



○ 월별 최근 10년 평균 기후값

기후 요소	단위	5월	6월	7월
평균기온(평년편차)	℃	17.5 (+0.3)	21.8 (+0.6)	24.9 (+0.4)
평균 최고 / 최저 기온	℃	23.6 / 12.1	27.1 / 17.4	29.0 / 21.7
강수량 / 강수일수	mm / 일	110.0 / 9.2	146.0 / 10.0	352.3 / 16.2
일조시간	시간	214.5	177.5	127.3
일최고기온 30℃ 이상 일수	일	1.3	6.5	13.2
일교차 10℃ 이상 일수	일	19.4	13.9	6.0
황사일수	일	1.2	0	0
열대야일수(밤최저기온 25℃ 이상)	일	0	0.1	2.9

* 기온·강수량은 45개 지점, 일조시간은 20개, 황사일수는 17개 지점 평균임.

* 평년기간 : 1981~2010년

○ 고온현상

- (2013년 6~7월) 6월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강한 일사와 남서기류의 유입으로 고온현상이 나타나고, 7월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이 지속되면서 평균 최저기온이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음(편차(℃) : 평균 최저기온 +2.0). 8월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가축이 폐사하고, 천여 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였음.
- (2012년 5~6월) 이동성 고기압과 동풍에 의한 지형효과로 서쪽지방을 중심으로 높은 기온이 자주 나타나 평균 최저기온이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음(편차(℃) : 평균 최저기온 +1.3).
- (2009년 5월 상순) 동서고압대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올라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음(편차(℃) : 평균 최고기온 +3.7). 모기가 대량 번식하여 극성을 부렸음.
- (2008년 7월 상~중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되어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네 번째로 높았음(편차(℃) : 평균 최고기온 +2.5 [1위 1994년 +4.9]). 동해안지방을 중심으로 고온현상이 나타났으며, 2명의 사망자와 닭 수천마리가 폐사하는 피해가 있었음.
- (2005년 6월 하순)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의 남서기류가 유입되어 남부와 동해안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고온현상이 나타나 평균 기온, 평균 최고 및 최저기온이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음(편차(℃) : 평균기온 +2.7, 평균 최고기온 +2.8, 평균 최저기온 +2.6). 냉방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정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 저온현상

- (2010년 5월 하순) 오호츠크해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저온현상이 나타나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가장 낮았음(편차(℃) : 평균 최고기온 -3.0). 동해 연안의 수온이 낮아져 어획량이 감소하고, 고랭지 채소의 생산량이 감소하였음.
- (2009년 7월 하순) 오호츠크해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북동기류가 유입되고 한기가 남하하면서 저온현상이 나타나 평균기온과 평균 최저기온이 1973년 이래 세 번째로 낮았음(편차(℃) : 평균기온 -2.5, 평균 최저기온 -2.2[1위 1993년 -3.6/-3.5]). 해수욕객이 줄고, 농작물의 생육지연이 일부 나타났음.
- (2008년 5월 중순)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는 가운데, 상층 한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평균 최저기온이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낮았음(편차(℃) : 평균 최저기온 -2.4[1위 1981년 -2.6]). 서리 발생으로 농작물이 냉해를 입었음.

○ 많은 비

- (2013년 7월 11~23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음(11~18일 누적강수량(mm) : 춘천 503.5, 철원 453.0, 홍천 395.1, 동두천 376.5 등/22~23일 누적강수량(mm) : 원주 248.5, 이천 242.0, 양평 227.5 등). 두 차례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600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1명이 사망하였음.
- (2013년 5월 27~28일) 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이 느리게 통과하고, 남쪽으로부터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음(27~28일 누적강수량(mm) : 남해 221.5, 진주 199.5, 장흥 182.0, 창원 171.0, 여수 164.3 등).
- (2012년 7월 5~6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음(6일 강수량(mm) : 원주 255.5[7월 극값 1위], 영월 173.5[7월 극값 1위], 수원 276.5[7월 극값 2위] 등). 수도권 일대 주택 480여 가구가 일시 침수되고, 수원 시내 곳곳의 도로가 물에 잠겼음.
- (2011년 7월 26~28일) 강한 대기불안정이 중부지방에 비구름대를 발달시켜 중부지방과 경남 남해안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음(27일 강수량(mm)[7월 극값 1위] : 동두천 449.5, 파주 322.5, 서울 301.5/26~28일 누적강수량(mm) : 동두천 675.0, 춘천 501.5, 서울 587.5, 파주 494.0, 부산 246.0 등). 산사태로 61명이 사망하고, 380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2011년 7월 9~10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9~10일 누적강수량(mm) : 순천 501.5, 진주 361.0, 군산 327.5, 산청 348.0, 합천 313.5 등). 9명이 사망하고, 1350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2010년 5월 18일) 기압골이 통과하는 가운데 남쪽으로부터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일강수량(mm) : 보성군 189.5, 마산 121.0, 남해 104.0, 진주 100.0 등).
- (2009년 7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네 차례에 걸쳐 많은 비(일강수량(mm) : 7일 부산 310.0, 마산 268.0, 12일 이천 304.0, 15일 진도 206.0, 16일 부산 266.5, 김해시 222.0)가 내렸음. 13명이 사망하고, 2580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2006년 7월 9일~29일) 제3~4호 태풍 ‘에위니아’와 ‘벨리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지역 곳곳에 많은 비(일강수량(mm) : 10일 남해 264.5, 산청 229.5, 상주 117.0, 16일 양평 285.0, 홍천 255.5, 26일 의성 164.0 등)가 내렸음. 산사태 등으로 62명이 사망하고, 1조 8300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2008년 5월 28일)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일강수량(mm) : 거제 157.5, 통영 130.5, 진도 123.0, 해남 107.0 등).

○ 강풍

- (2012년 7월 18~19일) 제7호 태풍 ‘키눈’이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서쪽지방에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렸음(19일 최대순간풍속(m/s)[7월 극값 1위] : 고창 24.1, 순천 20.9, 거창 18.0, 부안 17.8 등).
- (2011년 6월 25~26일) 제5호 태풍 ‘메아리’가 서해안으로 북~북서진하면서 강한 바람과 함께 동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26일 최대순간풍속(m/s) [6월 극값 1위] : 흑산도 34.8, 진도 29.3, 고흥 21.5, 파주 14.8 등).

○ 건조 및 가뭄

- (2013년 7~8월) 남부지방까지 확장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남부 일부 지역과 제주도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강수 부족으로 가뭄 현상이 나타났음(제주도 평균강수량 139.5mm[평년대비 25%]). 생활용수의 제한급수 및 농작물 고사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 (2012년 5~6월) 5월에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건조한 날이 자주 나타났고, 6월에는 오호츠크해고기압이 평년보다 강하면서 장마전선의 북상이 지체되어 장마시작이 늦어지고 강수량 부족이 장기간 지속되었음. 1973년 이래 5~6월 강수량이 가장 적었음(평균강수량 110.9mm[평년대비 43%]). 농업용수 부족과 한강 및 낙동강 하천에서 녹조피해가 발생하였음.

○ 황사

- (2011년 5월 1~4일) 내몽골에서 발원하여 황토고원과 산둥반도를 지나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매우 짙은 황사가 관측되었음(최고농도(시간평균, $\mu\text{g}/\text{m}^3$) : 2일 흑산도 1025, 고산 731, 진도 662 등). 공기청정기의 판매가 증가하였음.
- (2008년 5월 29~31일) 고비사막에서 발원하여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짙은 황사(최고농도(시간평균, $\mu\text{g}/\text{m}^3$) : 29일 백령도 967, 30일 관악산 1059, 천안 994 등)가 관측되었음. 기압계의 흐름이 느려 황사가 머무는 기간이 길어져 전국에서 황사가 관측되었음.
- (2007년 5월 8~9일) 몽골 고비지역에서 발원하여 만주를 거쳐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매우 짙은 황사(최고농도(시간평균, $\mu\text{g}/\text{m}^3$) : 8일 백령도 985, 대관령 641, 춘천 542, 광덕산 464 등)가 관측되었음.

※ 매우 짙은 황사 : 1시간평균 미세먼지농도가 $800\mu\text{g}/\text{m}^3$ 이상일 때/ 짙은 황사 : $400\sim 800\mu\text{g}/\text{m}^3$ 일 때